

『천수석』에 나타난 영웅의 문제적 형상

채윤미*

1. 서론
2. 이본 검토
3. 무기력한 영웅형 : 위보형
4. 나약한 영웅형 : 이사원
5. 『천수석』의 소설사적 의미
6.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천수석』의 주인공 위보형과 이사원의 인물형상을 분석한 것이다. 본고는 두 인물을 영웅의 형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의식이 투영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새롭게 발견된 이본인 『천생석』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논의과정에 충실히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천수석』의 작자의식 및 소설사적 위상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위보형은 귀족적 영웅의 조건을 타고났지만 세속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토대로 세속적 삶을 혐오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세속적 삶을 통해 부귀공명을 최고도로 성취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비극이 되고 그의 갈등은 삶의 본질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그는 세속적 타락상에서 비롯된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의 인식이 맞았음을 재확인하면서 정신적·심리적으로 고뇌하는 면모가 부각된 인물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형상이다. 하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 인물을 본고에서는 무기력한 영웅의 형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사원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모와의 관계에 두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同住를 위해서 세속적 삶을 미련 없이 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이것의 성취가 유예되므로 자신의 소망이 좌절될 때마다 침식을 폐할 정도로 슬퍼하는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목적의식이나, 부귀공명을 성취하려는 자아실현의 의지, 혼란한 시대상황을 개조해보겠다는 역사의식 중 그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뚜렷한 세계인식이 부재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모와의 관계에 두면서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인물을 본고에서는 나약한 영웅형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원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혹은 배치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위보형의 인물형상과 상통한다.

영웅 형상의 축소화, 비판적인 세계인식과 비극적 결말구도로 정리되는 『천수석』은 세대변화에 대한 통찰과 변화하는 세계상에 대한 냉철한 직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위보형과 이사원의 현실 도피적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천수석』의 소설사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본고는 『천수석』을 양반계 소설과 서민계 소설의 중간소설로 보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위보형과 이사원의 현실도피적 태도는 세속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니지 못했던 지배계층의 실상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느 작품들과 달리, 작품이 제기한 문제적 국면을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봉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작자가 지닌 문제의식은 비판적이고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보형과 이사원의 현실도피적 태도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면서도 이 작품의 문제제기적 속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의의가 시대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천수석』의 소설사적 의미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천수석』, 영웅형 인물, 나약한 영웅형, 무기력한 영웅형,
영웅형상의 축소화, 비관적 세계인식, 비극적 결말구조,
양반계 소설과 서민계 소설의 중간소설

1. 서론

『천수석』은 정병욱에 의해 낙선재본 소설의 하나로 소개된 국문장편소설이다.¹⁾ 이 작품은 당말 오대라는 역사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세속적 삶을 거부하는 주인공 위보형이 운명에 의해 세속에 나아가 시대적 혼란과 맞물린 술한 시련을 겪다가 세속을 떠나는 것을 주요 서사로 한다.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사원이 주인공이 되어 세속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지만 이 인물 역시 세속의 혼란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천수석』은 남성 인물 위보형과 이사원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실상 이 작품은 장편의 분량을 지니고, 위씨 가문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여타의 가문들이 등장하고 또 위씨 가문에는 위보형 외의 여러 구성원들이 설정되는 등 가문소설의 형식적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문소설과 달리, 위보형 외의 인물들은 독자적인 단위담을 지니지 않은 채 서술자에 의해 그때그때 단편적으로만 언급된다. 이 작품은 위보형 1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위보형의 서사는 전체 서사의 2/3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때 이 인물의 서사와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그와 혼인관계에 놓이는 여성인물들과 그를 모해하는 악인형 인물들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들은 위보형 서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보형이 세속을 떠난 뒤에는 그의 아들 이사원이 주인공이 되어 작품이 진행된다. 이 경우에도 서사의 핵심 축은 이사원의 일대기이다. 정리하자면 이 작품은 가문소설이지만 위보형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집결되는 특징을 지니며, 이사원의 서사는 위보형의 서사와 계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위보형의 서사에 내포된 함의를

1) 정병욱은 1966년 중앙일보에 처음으로 『泉水石』을 抄錄하여 소개하였다.

이어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천수석』은 위보형의 서사와 이사원의 서사를 핵심축으로 삼고 있으므로 『천수석』에서 두 인물의 서사를 분석하는 것은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남성인물은 귀족적 영웅의 조건을 타고났으며, 당말오대라는 亂世를 해결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이를 실천하는 영웅형 인물들이다. 그리고 『천수석』은 영웅형 인물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이다. 대개 영웅형 주인공이 지닌 고난과 성취란 세속적 삶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속적 삶에 대한 욕망을 전제로 세계와의 갈등을 전개해 가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천수석』은 거꾸로 그러한 욕망에 대한 거부로 인해 세계와 갈등하는 영웅을 그리고 있다. 『천수석』의 주인공 위보형은 세속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세속에서 살기를 거부한다. 그는 세속적 삶의 상징인 부귀영화에 대한 염증은 물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마저 미약하거나 부재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의식을 지닌 영웅형 인물이 자신의 해결을 요구하는 세속적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태도를 문제 삼는다. 이사원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영웅형 인물이다. 그는 표면상 아버지와 달리 세속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목적과 목표는 세속적 삶에 대한 욕망과는 관련이 없다. 이처럼 『천수석』의 두 영웅 형상은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의식이 투영된 인물형상으로 판단되며, 고전소설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주목된다.

그런데 그간 『천수석』에 대해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가운데 위보형과 이사원을 동일한 문제의식이 투영된 인물형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진 바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천수석』의 문제적 주인공인 위보형의 형상에 주목해 왔으며 이에 대한 해명 역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천수석』을 학계에 소개했던 정병욱은 『천수석』에 대한 개별논의를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위보형의 형상에 주목하여 이 작품이 고전소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점과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 작품을 포함하여 『화문록』, 『낙천등운』, 『보은기우록』, 『청백운』 등의 낙선재본소설을 양반계소설과 서민계소설의 중간적 성격을

떠는 소설유형으로 규정했다.²⁾ 이후 이루어진 후속 연구에서는 위보형의 독특한 형상을 초월지향성으로 규정하는 관점이 주류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천수석』을 도가적 세계관을 구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천수석』을 신성소설에 귀속시키기도 했다.³⁾ 하지만 이 작품은 위보형의 세속적 삶에서 비롯되는 고뇌와 고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위보형의 현실도피적 성향 역시 세속적 삶에 대한 그의 태도, 나아가 영웅형 주인공의 변모하는 세계인식과 고전소설의 변모하는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작품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런 견해와 변별되는 입장에서는 위보형의 형상을 이사원의 형상과 대비적으로 고찰하여 전자를 전근대적이고 부정적인 형상으로, 후자를 근대적이고 긍정적인 형상으로 해석한다.⁴⁾ 즉 이사원은 위보형의 한계를 긍정적으로 극복한 인물로, 이런 의미에서 『천수석』은 전근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근대의식의 산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인공이면서 고전소설에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인물인 위보형의 형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 결과 위보형의 인물형상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⁵⁾

2) 「조선조 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낙선재(樂善齋)본 소설의 몇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의 재인식』, 기린원, 1988, 163~202면(『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의 개정판임. 한편 이 논문은 본래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문화비평』1, 亞韓學會)이라는 제목으로 1969년에 나온 것이다).

3) 이상택은 『천수석』을 도가적 초월주의를 미학적 기저로 하는 신성계열의 작품이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상택 해제, 『泉水石』, 梨花女子大學校 韓國語文學硏究會 編,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2; 『한국고전소설의 이해』, 새문사, 2003). 이 외에 서정민,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의 대응적 성격과 연작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김재용, 「천수석연구」, 『한국학논집』2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가문소설에 나타난 도가사상-『천수석』을 중심으로」, 『국문학과 도교』, 한국고전문학회, 1998의 연구가 있다.

4)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30~33면; 박순임, 「泉水石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진경환, 「천수석(泉水石) 소고」, 『어문논집』29, 안암어문학회, 1990.

5) 그 밖에 『천수석』의 문체에 대한 연구(강은혜, 「〈泉水石〉의 敘述構造와 描寫談論 연구」, 『국어국문학』113, 국어국문학회, 1995)와 여성인물연구(장시광, 「〈천수석〉의 여성반동인물」,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5)가 있다.

이러한 연구사 검토를 통해 그간 『천수석』의 연구는 위보형의 인물형상에만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거나 위보형과 이사원의 인물형상을 대립적으로 파악하여 작품의 성격을 규정했다는 점이 포착된다. 특히 선행 연구자들 가운데 이사원에 대해 주목하지 않은 경우는 작품의 분량상 이사원의 서사는 위보형의 경우에 비해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⁶⁾ 하지만 『천수석』은 위보형이 세속을 떠난 뒤 이사원에 의해 서사가 전개되는 만큼 이사원은 주인공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원에 대한 고찰은 『천수석』을 논의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위보형의 인물형상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화하고 동시에 이사원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위보형과 이사원의 인물형상은 작품의 주제에 대한 동일한 문제의식이 투영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천수석』의 작자의식 및 소설사적 위상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이본인 『턴싱석』을 논의에 충실히 활용하고자 하므로, 다음 장에서는 먼저 이본에 대해 검토하겠다.

2. 이본 검토

이 장에서는 새로 발굴된 『천수석』의 이본인 『턴싱석』의 서지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턴싱석』의 이본 특징을 한중연본 『泉水石』과의 비교를 통해 밝히기로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천수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9권 9책의 완질본(『泉水石』, 이하 한중연본이라 칭함)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책의 낙질본(『천수석전』, 이하 국중본이라 칭함)⁷⁾ 두 종이 있었다.⁸⁾ 이에 따라 그간 『천수석』에 대한 연구는 두 이본을 대상으로 행해졌는데, 국중본은 한중연본의 체제에 따르면 권5에 해당하며 내용마저

6) 박순임, 앞의 논문, 126면.

7) ‘권지팔’ 1책만이 남아 있다.

8) 책의 서명은 『천수석』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겠다.

절반 정도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한중연본만을 연구의 텍스트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간 『천수석』의 연구자들은 한중연본이 어떤 모본의 축약본일 것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다.⁹⁾ 간단히 국중본과 비교해보아도 국중본 한편의 내용 전체가 한중연본에서는 한편의 절반 분량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연본이 상당한 축약의 결과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¹⁰⁾ 무엇보다도 한중연본은 축약의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영성하여 앞뒤 맥락을 잡기가 힘들 정도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텍스트의 결함이 있었다.¹¹⁾ 이에 따라 『천수석』은 또 다른 이본의 발견이 절실히 요구되어 온 셈이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이본 『턴싱석』(이하 『천생석』으로 칭함)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천수석』 연구에 진전을 가져올 만한 가치가 있다. 『천생석』은 조희웅이 엮은 『고전소설이본목록』¹²⁾과 개정판인 『고전소설연구보정』¹³⁾에 작품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미발굴 작품으로 표시되어 있다. 전자에서는 개인소장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만 후자에서는 이 정보가 소거되었다.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두 책 모두에서 『천생석』과 『천수석』이 서로 다른 작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간 『천생석』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대로 확인된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본고에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천생석』은 『천수석』과 동일한 작품이다.

『천생석』은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 소장되어 있고 7권 7책으로 된 한글필사본이며 권1, 권5, 권6, 권7만이 발견된 낙질본이다.¹⁴⁾ 表題는 ‘턴싱석’, 卷首題는 ‘턴싱석’으로 되어 있다. 권1은 73장, 권5는 73장, 권6은

9) 박순임, 앞의 논문; 변우복, 「천수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송성욱, 「〈泉水石〉의 텍스트 결함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장시광, 앞의 논문.

10) 국중본은 현재 권8만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한중연본에서 권5에 해당한다. 이 때 국중본 권8 전체 내용이 한중연본에서는 권5의 절반분량으로 축약되어 있다.

11) 송성욱, 앞의 논문.

12) 조희웅, 『古典小說異本目錄』, 집문당, 1999.

13) 조희웅, 『고전소설연구보정』, 박이정, 2006.

14) 『천생석』 교주본은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한글 생활사 자료총서의 하나로 곧 출판예정이다. 본 논문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주신 선문대학교 박재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74장, 권7은 76장이고 매면 11行 21字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이제 『천생석』과 한중연본 『천수석』의 이본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¹⁵⁾ 두 이본은 전반적인 스토리는 동일하지만 서술의 순서가 다르거나 표기법이 다르고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다르다. 이를 통해 두 이본은 서로 다른 모본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대당 선종년간의 일위 명환이 광하 짜히 잇스니 성은 위요 명은 광미요 즈는 문첩이라. 당나라 지국공신 위정의 후예요 형양절도스 왕수신의 외손이라. 위시 동독이 광하 썬의 복거혀여 동중의 연장접옥혀여 십니의 버렷더라. 광미 쇼년등과혀여 형제 습인이 편모를 효봉하고 낭제로 우익하여 벼슬이 중낭장의 니르고 실중의 원비 한시 (한중연본 권1, 1a)

대당 선종 년간의 시둥 위광미는 어딘 정승 위시둥 덩의 후에라 위승샹으로브터 위시 디 : 로 당시절의 명족으로 유명하고 또 번성혀여 광하니의셔 사니 집을 년혀며 담을 접혀여 십여 리의 버릿는 슈문화옥이 다 위시의 족친이라 즈슈금디훈 재 수십인이로디 광미 그 둥의 중당이라 형데 스오인이 다 공경이오 위공의 위인이 □성화순혀여 □자의 풍이 이시니 친척이 공경하고 스랑혀더라 모부인 왕시는 형서절도스 왕수신의 녀지라 거대□□□되 잇고 치아혀미 네되 이셔 □□□□□의셔□ 니공의 부인 한시 (『천생석』 권1, 1a)

두 이본에서 작품이 시작되는 첫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첫머리에 시대를 언급하는 ‘당나라 선종 년간’의 서술에서부터 두 이본은 각각 “대당 선종”과 “대당 선종”으로 서로 다른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그리고 스토리가 전달하는 내용은 같지만 서술의 순서가 다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위보형의 아버지인 위광미를 소개하면서 한중연본에서는 ‘당나라 개국공신 위정의 후예요, 형양절도사 왕수신의 외손’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 『천생석』에서는 ‘위광미는 어진 정승 위시중 징의 후에라’에서 서

15) 국중본의 경우 남아있는 권8의 내용은 현재 발견된 『천생석』에는 해당부분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본비교를 진행할 수 없다.

술이 끝나고 그의 어머니인 왕씨에 대해 소개하면서 ‘모부인 왕씨는 형서절도사 왕수신의 여자라’라고 하여 위광미가 역시 형서절도사의 외손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 한중연본에서는 “연장접육”으로 서술된 부분이 『천생석』에서는 “집을 년^{ᄃᆞ}며 담을 접^{ᄃᆞ}여”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전자가 한자식 표기를 지향하고 후자가 한글식 표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어도 다른 부분에 이르면 두 이본이 반대의 표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두 이본은 체제가 다르다. 한중연본이 9권 9책으로 분권되어 있는 반면, 『천생석』은 7권 7책으로 구성된다. 권1의 경우만 비교해보면 『천생석』은 11행 21자로 필사되어 있고 73장의 분량을 지니는데, 한중연본은 10행 21자로 필사되어 있고 38장의 분량을 지닌다. 이처럼 두 이본은 권당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분량 차이를 보이지만 실상 『천생석』 권1의 69면에서 한중연본 권1의 전체내용이 끝나므로 권당 스토리는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생석』이 한중연본의 두 배에 가까운 분량을 지니는 것은 『천생석』이 그만큼 풍부한 서사를 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천생석』이 사건의 정황을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전개와는 별도로 풍성한 장면전개를 담고 있는 점이다.

먼저 『천생석』은 한중연본이 짧은 분량에 전체 스토리를 담기 위해 생략하거나 축약해버린 정황들을 세세하게 담고 있어 서술의 논리성과 개연성을 획득하고 있다. 『천생석』에 전개된 스토리를 기준으로 하여 예를 들어본다. 권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위보형과의 인연을 도모하던 이초혜는 간옥지가 설옥영과 혼인하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간옥지의 계략이 실패하고 위보형과 설옥영이 예정대로 혼인하자 이초혜는 상사병으로 앓아눕는다. 그러다가 이초혜는 心腹侍婢 ‘분도’를 불러 위보형과 남몰래 인연을 맺을 계략을 말하고, 분도는 이 일을 도모할 인물로 육파를 추천한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서술자에 의해 육파라는 인물이 소개된다. 이어서 육파는 이초혜를 방문하여 속사정을 전해 듣고 이 일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수많은 뇌물을 받는다. 그런데 한중연본의 경우, 이초혜가 분도

에게 위보형과의 인연을 도모할 계락을 말하자 분도가 감탄하는 장면에서 뜬금없이 육파가 분도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육파는 이 장면 이전에는 작품에 언급된 적이 없다. 독자로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정황상 갑작스럽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그 장면에 끼어드는 것은 서술논리상 맞지 않는데 한중연본에는 이러한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것은 작품의 수준을 의심하게 한다. 그렇게 때문에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한중연본이 축약본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것인데, 『천생석』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해준다. 더불어 두 이본이 모본은 다르지만 『천생석』을 통해 모본의 원 형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천생석』에 담긴 풍부한 장면전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중연본에 축약되거나 생략된, 『천생석』에는 구현되어 있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동창공주의 죽음 및 장례식 대목이다. 동창공주는 위보형의 두 번째 부인으로 덕성이 훌륭한 인물이지만 위보형의 모해자들에 의해 임신한 아이를 유산한 채 1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이처럼 억울한 처지에 놓인 동창공주의 죽기 전 모습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독자의 감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중연본이 대략 7줄로 요약 서술하는 데 반해, 『천생석』은 6장에 걸쳐 제시한다.¹⁶⁾

부미 공쥬를 쥬야 구병하니 임의 디운이 넘흐니 무가니히라. 시세 계하 등순의 공쥬의 병세 더욱 등흐여 빅최 무효흐니 스스로 니지 못홀 줄 알고 니에 황야와 모비를 청흐여 유언을 씨칠 시 언언이 구가일문을 보전흐게 흐시물 청흐고 불효를 가득히 사죄흐고 부마를 디흐여 유언을 맞고 엄연 속광흐니, 가히 어엿브다. 청년이 거요 삼오홍안이라. 숨춘이 진치 못흐여 쫓치 썩러지고 날이 저무지 아니흐여서 날빛치 희문의 잠기이니 촛춧비위로다. (한중연본 권6, 18b-19b, 밑줄은 필자)

한중연본에서 동창공주가 죽는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을

16) 『천생석』 권5, 6a-11b.

보면 동창공주는 황제와 어머니인 숙비, 그리고 부마 즉 남편 위보형에게 유언을 했다고 서술된다. 이 부분을 『천생석』에서 찾아보면 일단 동창공주는 죽기 직전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꾀다. 꿈에서 꾀 공주는 위보형을 불러 꿈 이야기를 전하면서 죽기 전 마지막 소회를 전달한다. 이어서 황제와 숙비가 방문하자 유언을 남긴다. 이 과정에서 공주와 부마, 황제, 숙비가 나누는 대화가 장장 6장에 걸쳐 제시된다. 이런 서술방식의 결과 『천생석』에서는 죽는 이의恨과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남은 이의 안타까움의 밀도가 진하게 전달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장면전개가 작품의 분위기를 비극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상은 공주의 장례식 장면을 통해 심화된다. 한중연본에서는 공주가 죽자 發喪과 동시에 장례가 치러지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것을 분량으로 따지면 1장 반에 그친다.¹⁷⁾ 이에 반해 『천생석』에서는 동창공주의 죽음으로부터 發喪, 入棺까지의 절차, 황궁에서 동창궁으로 靈柩를 이동하는 장면, 동창궁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하는 장면, 歸葬하기까지의 조석제전 등을 낱낱이 기술한다. 그나마 여기까지의 내용은 한중연본 『천수석』에서도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장례 준비과정인 遷度에 대한 논의로부터 歸葬시의 풍경인 發輓, 山役, 成墳, 反哭, 虞祭 등의 상례 절차, 葬日 이후의 조석제전 및 初忌에 이르기까지의 서술은 『천생석』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다. 이 장면의 분량은 한 책(권5)의 2/3에 해당한다.

이처럼 한 책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동창공주의 죽음에 관한 서술은 서사의 분위기를 음울하고 비극적으로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슬픔과 애통함을 넘어 삶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는 위보형의 고뇌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위기와 정감은 세속에 강제로 던져진 위보형의 내면풍경을 투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창공주의 죽음에 대한, 사건 전개와는 별 관련 없는 장황한 장면전개는 이 작품의 세계관 및 작자의식을 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작품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를 사건의 서술로만 한정한다면 저와 같은 함축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

17) 한중연본 권6, 19a-20a.

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연본에 생략되거나 축약되어버렸지만, 『천생석』에 살아있는 이러한 장면전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풍성한 장면전개를 통해 인물의 내면심리도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대개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 행동과 대화, 내면심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한중연본이 인물의 행동 서술에 치우쳐있다면 『천생석』에는 행동과 함께 대화와 내면심리가 소상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물의 성격 및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특징은 그간 선행연구에서도 주목받아왔던 위보형의 형상 뿐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인 이사원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본고의 서론에서 기존 논의와 달리 이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바로 『천생석』에 이사의 특징적 면모가 잘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생석』은 한중연본보다 풍부한 서사를 담고 있는 이본이라는 점에서 향후 『천수석』의 연구는 반드시 『천생석』과의 연계 아래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의 논의는 새로 발견된 『천생석』을 주된 자료로 하여 행해질 것이다. 다만 『천생석』이 낙질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천생석』에서 빠진 부분에 한하여 한중연본을 활용하기로 한다.

3. 무기력한 영웅형 : 위보형

『천수석』의 주인공 위보형과 이사는 고귀한 혈통과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운명을 타고나 이를 실천하는 영웅형 인물이다. 위보형은 당나라 개국공신 위징의 후예이며 “위치 왕작의 니를 거시오”¹⁸⁾과 “만인지상”¹⁹⁾과 “뉴명만세”²⁰⁾할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나 위보형은 그를 모해하려는 계모 양부인, 그를 흠모하는 이초해, 위보형의 부인 설옥영을 흠모하는 간옥지에 의해 슬한 고난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위보

18) 『천생석』 권1, 11b.

19) 『천생석』 권1, 12a.

20) 『천생석』 권1, 11b.

형의 또 다른 부인인 동창공주는 죽음에 이르고 위보형 부부는 귀양살이를 전전하다가 아들인 이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원은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가 구출·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두父子는 훗날 이초혜, 간옥지에 의해 나라가 망할 즈음 극적으로 재회하여 함께 나라를 구하고 황실을 부흥시킨다. 이처럼 위보형과 이사원은 영웅의 일생 구조를 비교적 충실히 구축하고 있는 영웅형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보형과 이사원은 어떤 성격의 영웅형 인물인가? 먼저 이 장에서는 위보형의 형상에 대해서 고찰한다.

고전소설에서 영웅형 주인공은 크게 두 가지 형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귀족적 영웅의 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적 영웅의 형상이다.²¹⁾ 민중적 영웅은 고난을 타고나며 세계와의 갈등이 삶의 본질적인 양상으로 제시된다. 미천한 처지에 있는 자가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갈등이므로 그러한 갈등에서 그의 일생이 전개된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천한 처지로 인한 제약을 받아들여 능력을 숨기고 세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민중적 영웅은 이에 저항하는 바람에 영웅으로의 길이 좌절되고 비참한 최후에 이른다. 그러므로 민중적 영웅의 형상에는 비극성이 수반된다. 반면 귀족적 영웅은 행복을 타고나며 세계와의 갈등은 우연히 나타나는 의외의 것이고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며 처음에 약속된 행복이 결국 최고도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소설에서는 행복이 삶의 본질적인 양상인 듯이 제시되어 있다.²²⁾

21) 조동일은 영웅소설의 의식지향에 따라 귀족적 영웅소설과 민중적 영웅소설로 나누어 논의하였다(『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14~39면) 한편 박일용은 집단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의 행적을 소설화한 작품 및 영웅의 일생구조를 구현하는 작품들을 통틀어 영웅소설의 범주로 파악한 다음, 이들을 다시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물의 비극적인 인물 전설을 매개로 하여 민중적, 민족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한 인물들의 삶을 창작적으로 형상화한 『최고운전』, 『홍길동전』, 『임경업전』, 『전우치전』을 민중적 역사영웅소설로, 외형적으로 영웅의 일생구조를 구현하는 한편 표면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의라는 공동체의 이념 실현을 표방하면서도 기실 그것을 매개로 주인공 개인의 욕망실현과정을 그리는 작품들을 ‘통속적 창작영웅소설’이라고 명명했다.(『영웅소설 하위유형의 이념지향과 미학적 특징』,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17면) 본고에서는 두 용어를 모두 수용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22) 조동일, 위의 책, 14~23면 참고.

그런데 귀족적 영웅이든 민중적 영웅이든 영웅형 주인공은 세속적 삶을 전제로 고난과 성취를 이룩하는 인간형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위보형의 인물형상의 특징은 이 지점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위보형은 이러한 삶에 대해 회의적인 영웅이기 때문이다. 위보형은 5세에 은거하는 인물인 외숙 이처사를 따라 세속의 밖으로 나가 수학한다.²³⁾ 그리고 7년 뒤 자신을 세속으로 내보내려는 이처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위보형이 서사에서 하는 첫 번째 발화이다.

“쇼달이 성권 지조로 세상을 건달 디혜 업스니 괴로운 공명이 도로혀 몸을 밋는 낙시라 숙부의 도를 니어 향산고절을 효측흠미 가흐니잇가?”

(『천생석』 권1, 4a)

공명이란 괴로운 것이고 몸을 엮어매는 낙시라는 언급을 통해 위보형이 세속의 삶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이 처음부터 드러난다. 그런데 특히, 위보형이 자신의 재주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고 말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위보형이 은거를 택하려는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표현 정도로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상은 정말로 구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고 보는 부정적인 세계인식의 표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맞물려 있다. 서사가 전개됨에 따라 드러나는 위보형의 태도를 통해 그가 이 세계는 건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세속에 처하여 은거를 꿈꾸며 문체에 직면할 때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사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12세의 위보형에게 세속적 삶과 부귀영화는 그의 삶에서 天命이기에 거역할 수 없다며 그를 세속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本家로 돌아온 위보형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교류하기를 꺼리고 집에서 숨어 지낸다. 그러다가 황제가 과거시험을 베풀자 못 형제들이 시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홀로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 때

23) 이처사는 황제의 부름을 거절한 채 은거하면서, 세상에 명성이 자자하지만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속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

위보형은 형제들과 부귀공명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삶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이 장면에서 위보형이 지닌 세계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천수석』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판단된다.

원형이 쇼왈

“남이 세상의 늑미 쇼년등양하여 옥결을 잡은 청스의 명확하여 출장납상하여 팔방의 그 일흠을 올니고, 스이 귀복하며 치군노순하며 아방덩국하여 부귀하며 곽분양 갖하여 화안분디를 구름갓치 둔 연후의야 쾌한 장부의 스업이여늘 단양 니쳐는 숨은 처시 갈건포의로 혼 필 건너의 숨척동지 견마를 들고 디스립의 썬를 덤허 집이 피썬리의 의지하여 쇼도하며 막심하고 늑면 덕요하고 들면 처량하여 송풍이 귀밧출 불고 폭포쇼리로 관현을 디신하여 산과 치근은 그 집 식읍이요 던초믹전은 그 집 보비라. 비록 일흠이 중하고 흑식이 놓흔들 스스로 괴로오미 이곳고 무어서 귀허리오.”

(중략)

보형이 미쇼 왈

“외구는 실노 시름 업산 스름이라. (...) 고어의 운허디 ‘턴즈의 시름흔는 거시 하로도 일만 가지라. 만승의 평안하며 엇지 날과 갖허리오.’ 하니, 헌신 갖흔 부귀 무어서 귀허리잇가?”

(중략)

보형이 왈

“고인이 부귀를 탐하여 일흠을 세운 스름이 몇치노. 군지 혼갓 부귀 변화를 탐하여 망신취화를 만스면 도로혀 님하의 도히 잇슴만 갓지 못허리니 그런 시절의 부귀변화를 탐하여 망신취화를 만스면 도로혀 님하의 도히 잇슴만 갓지 못허리니 그런 시절의 부귀 그리 도허리잇가?”

(한중연본 권2, 25b-26b)²⁴⁾

위보형의 만형인 위원형은 곽분양의 세속적 삶과 외숙 이처사의 은거하

24) 이 부분에 한해서만 한중연본을 인용하였다. 『천생석』이 낙질본인 관계로 해당부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부분은 전부 『천생석』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는 삶을 비교하면서 후자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 이것은 영웅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에 내포된 일반적인 세계인식이라 할 수 있다. 남자로 태어나 일찍 급제하여 유명한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출장입상하여 이름을 만방에 드날려 광분양의 부귀복록을 이루고 미인들을 구름처럼 두는 것이 대장부의 쾌한 사업이라는 점, 이처사처럼 갈건 포의가 되어 한 필의 蹇驢를 거느리고 초가집에 의지하여 적막하고 처량하게 사는 삶을 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위보형은 회의적이다. 위보형은 천자의 시름은 하루에도 일만 가지라고 하면서 부귀를 험신 같은 것으로 본다. 위보형에게 부귀번화는 망신취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요컨대 위보형은 부귀와 고난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는 염세적인 세계인식을 지닌 인물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를 단순히 도교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²⁵⁾ 이것은 『천수석』이 세속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묘사하는 데 반해, 세속 이외의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소략하게 언급하는 것에서도 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²⁶⁾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 작품이 지닌 바, 세속에 대한 강한 관심과 그 외의 세계에 대한 관심의 부재로

25) 이상택은 위보형이 어려서부터 몰육이나 공명에는 뜻이 없고 고답적인 은둔생활을 흠모하는 천품을 타고난 존재이며 위보형의 죽음을 화산선계로의 복귀로 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작품의 미학적 기저를 도가적 초월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작가가 위보형의 시편을 통하여 현실적, 세속적 세계의 적나라한 추악상을 그려 보여주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이 성과 속, 백운의 길과 청운의 길, 초월주의와 현실주의라는 대립적인 두 존재론적 양상 사이에서 위보형이 추구한 존재론적 지향은 성, 백운의 길, 초월주의로 표상되는 세계였지만 천리천명에 따라 그가 가야 할 길은 후자였다는 점에서 위보형의 삶은 원천적으로 비극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이상택, 「낙선재본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10~12면)

26) 박순임의 연구에서도 『구운몽』 등은 초세속에 대한 선행적이고 맹목적인 지향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초세속계를 추구하는 사상 내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천수석』은 세속계의 지양을 위한 도피치로 초세속계가 설정된 만큼, 세속계 지양의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다시 말해 초세속계의 존재는 세속계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며, 초세속 자체의 의미를 직접 인식한 것이 아니고 세속에 대한 부정의식의 표상으로 초세속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초세속의 면모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초세속 지향의지가 어떤 것으로든 행동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진다. 다시 말해 위보형의 초세속 지향의식이 강렬한 인간적 욕구로서 발현된 것이 아니고 관념과 선험적인 인식에 그친다고 논의했다(박순임, 앞의 논문, 90~96면 참고).

설명이 가능하다. 『천수석』에는 세속의 타락상에 대한 인식이 심도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작자의식이 투영된 인물이 위보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보형을 통해 대변되는 『천수석』의 세계인식은 일반적인 영웅형 인물 서사의 인식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맥락 속에서 판단해보건대, 『천수석』에 구현된 위보형의 특수성은 도교적 세계를 지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닌 인물이 세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느끼는 패배의식과 무기력함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위보형은 늘 은거를 지향하는 발언을 하지만 막상 세속으로부터 떠나지 못한다. 대신 그는 자신의 해결을 요구하는 세속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대신 최소한의 선에서 방어하기에 그치고 나머지는 방치한다. 그 결과 그는 운명의 노예가 되어 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위보형은 완벽한 조건을 타고나 세계를 구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진 귀족적 영웅이지만, 이를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세계와의 갈등이 시작되므로 귀족적 영웅과 차별화된다. 한편 위보형이 지닌 세계와의 갈등은 민중적 영웅과 유사하게 삶의 본질적인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민중적 영웅의 형상에 한층 가까워진다. 그런데 민중적 영웅이 세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능력을 숨기고 세상에 나서지 않는 대신, 이에 저항함으로써 비극을 초래한다면 위보형의 비극성은 그가 어느 하나도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한 채 방황만을 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마침내 도피하기까지 위보형은 대체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 행동보다는 체념과 후회, 방황, 고뇌라는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극대화된 인물이다. 게다가 엄밀히 말해 도피마저도 위보형을 위기에서 구하려는 仙翁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보형은 결국 어느 것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는 민중적 영웅의 과감한 선택과 순간의 빛나는 형상과도 거리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위보형의 형상을 무기력한 영웅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제 위보형의 서사를 통해 무기력한 영웅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위보형의 서사가 보여주는 특징은 행복은 소거된 채 시련과 고난으

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위보형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설옥영과의 혼인-장원급제-설옥영과의 이혼-동창공주와의 혼인-동창공주의 죽음-두 차례의 귀양-세속으로부터 일시적 도피-전쟁-세속으로부터 완전한 도피가 된다. 대개 영웅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가 시련과 극복,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지향하는데 반해, 『천수석』의 주인공 위보형은 계속적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채 아들마저 버리고 세속을 떠나버린다. 이러한 서사적 특징은 세속의 타락과 혼란상을 강조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인물의 소극적인 태도를 한층 무기력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그 중 위보형이 세속에 나와 당면하는 첫 번째 사건인 혼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혼사 문제는 위보형에게 고난의 시작이자 그가 평생 겪게 될 시련의 근원이 된다. 더불어 이 속에는 작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세속의 타락상이 집약되어 있기도 하다.

위광미와 설정문은 위보형과 설옥영을 혼인시키기로 결정하지만 위광미의 次妃 양부인은 위보형이 명문대가의 규수와 혼인하면 元妃 이부인에게 總權을 빼앗기게 되므로 혼사를 저지하기로 계획한다. 이 때 양부인은 자신의 조카인 이초혜를 위보형과, 간옥지를 설옥영과 맺어지게 하려고 이들을 끌어들인다. 그 과정의 서사를 대략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부인은 간옥지의 아버지가 황제의 장인인 國舅인 점을 이용하여 환관을 통해 황제의 사촌지를 위조한다. 이로써 간옥지와 설옥영은 강제로 혼인 관계에 놓인다.
2. 위씨와 설씨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위보형과 설옥영의 혼인 날짜를 양부인 몰래 앞당긴다.
3. 이 사실을 알게 된 양부인측은 설옥영이 위씨 집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녀를 납치하기로 계획하고 간옥지와 그의 무뢰배 일당은 길에 매복한다.
4. 위씨와 설씨 측에서 이것을 알고 설옥영 대신 다른 사람을 태운 가짜 가마를 만들어 간옥지 무리에게 넘기고, 진짜 설옥영이 탄 가마는 위씨 집안으로 들어와 혼례를 치르게 된다.

5. 간옥지 측에서 가마가 가짜임을 확인하자, 간옥지가 여장을 하고 위씨 부중으로 와 설옥영을 훔쳐보다가 발각된다. 이에 위광미와 설정문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다.
6. 황제가 사혼지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간옥지의 누이인 간귀비가 나서서 황제가 술김에 한 일이라고 무마한다.
7. 간옥지와 결탁한 환관들의 농간으로 황제는 설옥영을 후궁으로 들이려는 어지를 내린다.
8. 위보형의 계교로 황제의 총권을 장악하고 있던 곽숙비의 마음을 움직여 설옥영을 그녀의 시비로 바꿔치기한 다음, 설옥영은 위씨 집안으로 돌아와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낸다.

위보형과 설옥영이 혼인을 이루는 과정에는 모해자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온갖 암투와 술수가 동원된다. 먼저 양부인의 사주를 받은 간옥지는 황제의 사혼지를 얻어내어 설옥영과의 강제혼인을 추진한다. 그는 이 때 國舅라는 아버지의 권력과 뇌물을 이용하여 환관에게서 사혼지를 얻어낸다. 서술자에 의해 제시되듯이, 이 때 황제는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정국은 환관과 간신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²⁷⁾ 그래서 황제의 政事를 대행하는 늙은 환관 누태감은 황제의 사혼지를 손쉽게 위조한다. 한편 조정의 권력자들은 국구 간문추와 同類이다. 그래서 간옥지는 자신의 외숙인 예부낭중 지제교 양지지, 양지지의 친구이자 누태감과도 돈독한 인사들인 급사중 두악·예부낭중 위당·간의대부 고상을 거느리고 황제의 聖旨를 받들어 설씨 부중으로 간다. 하지만 이런 계략을 알게 된 위씨와 설씨 집안에서는 혼인 날짜를 몰래 앞당겨 혼례를 치르기로 한다. 다시 간씨 집안에서 이를 알고 혼인날 설옥영 가마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자, 위·설 양가에서는 또 다시 이를 알고 가짜 가마를 만들어 대처한다. 간옥지 일당이 가짜 가마를 탈

27) 가국이 쇠미하고 방실이 여휘하여 신군이 즉위하신 후로 성감이 도치 못하여 일월이 폐광하고 환관이 집권하며 간신이 득지하여 궁중의 여말이 성하고 스치될 숭상하여 정시 난잡하니, 충의지시 강기호를 니끼지 못하여 벼슬을 버려 향니로 물너가는 지 만터라. (『천수석』, 권1, 6a)

취해서 간씨 집안으로 간 다음, 진짜 가마를 탄 설옥영과 위보형은 예정대로 혼례를 치른다.²⁸⁾

이처럼 위보형과 설옥영이 혼인을 이루는 과정에는 황제의 무능과 조정의 부패라는 『천수석』의 시대 배경이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과 뇌물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상이 자연스럽게 제시된다. 또한 부정을 저지르는 무리들의 행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다면 위보형과 설옥영 측으로 대변되는 正道를 지키는 무리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이 역시 사회의 타락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한편, 이 때 등장한 이초혜와 간옥지는 서사가 종결될 때까지 위보형과 설옥영의 모해자가 되어 이들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의 주동자로 활약한다. 특히, 첫 번째 사건이 양부인의 투기가 발단이 되어 벌어진 것이라면 이후의 모든 사건은 위보형에 대한 이초혜의 욕망에 의해 발생한다. 이초혜에 의해 겪는 위보형의 고난은 서사가 진행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띤다. 왜냐하면 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가문 내 문제로 한정되는 반면, 후자에 의한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부터 국가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²⁹⁾ 그러므로 견잡을 수 없는 규모의 시련 앞에 위보형의 소극적인 현실 대응 태도는 한층 무기력한 것으로 표출된다.

이초혜는 양부인에 의해 위보형을 보고 첫 눈에 반한 뒤, 위보형과 인연을 이루기 위해 돈으로 매과를 매수하여 만남을 꾀했다가 매과들의 농간으로 마침 설옥영과의 만남을 원하던 간옥지와 동침한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간옥지와 혼인하지만 이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보형이 머무는 곳에 찾아가 동침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굴욕을 당한다. 이로 인해 양심을 품게 된 이초혜는 이모인 괘속비에 의지하여 황궁에 들어간 다음, 오히려 황제를 유혹하여 그의 새로운 비-新妃-가 되자, 위보형을 과멸 하기에 혈안이 된다. 이를 위해 이초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황제의 사랑을

28) 간부에서는 납치한 가마 속에서 나온 당대의 금위교위 이극용에 의해 망신을 당하고 이극용은 간문추의 불의무도함을 참을 수 없어 그를 죽이고 자신도 귀양을 간다.

29) 이초혜의 인물형상에 대한 논의는 장시광, 「〈천수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사, 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독차지하는 동창공주를 죽인 것이다. 동창공주는 괘속비의 외동딸이면서 위보형의 부인이므로 이 인물을 없애으로써 이초혜는 황제의 총애를 자신이 독차지하고 위보형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초혜는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위보형을 변방 순무사로 보낸 뒤, 환관들과 太醫를 매수하여 임신 중인 동창공주에게 3개월에 걸쳐 독약을 투여하여 죽인다. 그런데 위보형은 황제로 하여금 자신을 변방으로 내치게 하는 이초혜의 계략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인다.

“니경동·두약 등이 혼 무리 간인이라. 날을 희코져 하니 먼니 순무를 천 거히미 니 만일 스양하여 가지 아니면 간인이 반드시 날노써 옥류를 유세하여 괴로운 거슬 피하고 부귀를 탐한다 흐리니 니 가문 가려니와 니 마음이 기리 슬프고 거리끼는 보는 (...) 간인이 스이의셔 반드시 옥류를 희히거는 설시를 희히거는 괴관을 널 거시니(...)” (한중연본 권5, 37a-37b)

위 인용대목에서 위보형은 간인의 무리들이 자신이 없는 틈에 동창공주와 설옥영을 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만 할 뿐, 실상은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그저 슬프다는 감정표현만 내비치고 변방으로 떠난다. 여기서 위보형의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다음 장면에서는 이러한 그의 태도가 약여하게 드러난다.

“악뵈 서울 잇기를 원티 아니시믄 올커니와 간인을 피하여 가기는 므츨내 효험이 업스리이다. 쇼틸이 성년의셔 썩나디 아났던들 엇디 실인을 먼니 보내여 그 해 일문의 밋게 흐리오. 이는 도시 운익이로소이다.”

설부인이 놀나 왈,

“네 엇디 미리 아는다. 아니 므슴 괴미 잇느냐?”

승상이 웃고 곱오디,

“엇디 짐작디 못흐리잇고. 이 무리들이 므츨내 우리 부쳐 삼인을 다 못고 나리니 쇼틸이 두 안해롤 목전의 다 보전티 못하게 되엿나이다.”

부인이 경으하여 곱오디,

“네 몸이 텃하 정승으로 엇디 더 간사흔 무리들을 제어티 못하고 도로혀 화를 밧노뇨.”

승상이 숙모의 낫출 우리 쇼왈,

“숙피 쏘흔 부인이라 텃하 니세를 엇디 아라시리잇고 이 도적들이 밧기 엇디 아니하니 복장의 드러 모든 여오 스령으로 췌하니 더 음사흔 정적을 후의 비록 촌즌들 밧서 엇디하리잇고?”

부인 왈,

“우리 달은 그티니 쏘 비록 저희 문 : 하여 해흔들 옥썬을 엇디 하슈하며 너를 므슴 힘으로 요동하리오.”

싱왈, “숙피 모르시느이다. 남기 높흔 배 바람이 그칠 때 업고 부귀 등흐매 목숨이 저러느니 쇼딜이 선비로 이시면 간대로 헤테 못하려니와 이제 정승흐매 죽기는 더 쉽고 설시는 비록 사라 보형과 동낙하여도 공주는 임의 죽게 되여시니 쇼딜이 몇 희를 평안하리잇고. 몸이 하 곤하니 자라 가느이다.”

(『천생석』 권5, 4a-5a)

위 대목은 위보형이 숙모와 대화하는 장면이다. 숙모는 위보형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 놀란다. 위보형이 이미 벌어져버린 동창공주와 설옥영의 불행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과 간인들의 술책을 간파하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친하의 정승이 되어 간인들의禍를 제어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데에 의아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숙모의 물음에 대한 위보형의 태도는 한결같다. “이는 도시 운익이로소이다.” “비록 촌즌들 밧서 엇디 하리잇고?” “쇼딜이 몇 희를 평안하리잇고. 몸이 하 곤하니 자라 가느이다.”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그는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인식하고 이미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앞으로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만 잡이나 자러가야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듯 그는 체념적이고 무기력하다. “나무가 높으면 바람이 그칠 때 업고 부귀가 중하면 목숨이 짧다.” 는 것이 위보형의 세속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이것이 곧 세속의 生理라고 여기며 “쇼딜이 선비로 이시면 간대로 헤테 못하려니와 이제 정승흐매 죽

기는 더 쉽고”라는 데에서는 이러한 세속의 생리를 자신이 어찌하겠느냐는 태도를 보인다.

이후 동창공주가 죽고, 설옥영은 간옥지 무리로부터 큰禍를 당하려다가 가까스로 모면한다.³⁰⁾ 그리고 위보형은 이초혜가 황제에게 그를 반역자로 모해하는 바람에 죄인이 되어 귀양길을 전전한다. 위보형이 부재하는 틈에 이초혜는 의종황제를 독살하고 새 황제를 세운 후 간옥지를 시켜 위조로 위보형을 죽이려고 보낸다. 이 때 위보형은 자신을 구하려고 나타난 仙翁에 의해 세속을 떠나 10년 간 선계에서 머문다. 그 사이에 이초혜는 자신이 태후가 될 욕심으로 세웠던 희종황제에 의해 가족이 몰살당하고 내쳐진다. 하지만 희종 역시 용렬하여 간신들이 국권을 장악하는 혼란한 시기가 이어진다. 이어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 장안이 함락되고 희종은 피신한다. 이를 알고 위보형이 다시 세속으로 나와 4살에 잃어버렸던 아들 이사원과 극적으로 만나 황소의 난을 물리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술자에 의해 석 줄로 서술된다. 이것은 이 작품이 군담과 더불어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을 표현하는 것에 별반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또 이것은 위보형이 국가의 패망을 구했다는 사실을 축소시켜 위보형의 문제해결능력을 약화시키는 기능마저 한다. 황소의 난을 해결한 위보형에게 동평장사 초국공이 제수되지만 위보형은 이를 사양하고 완전히 세속을 떠나 이후로는 신선의 모습으로 이사원의 꿈속에서나 등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천수석』의 주인공 위보형은 귀족적 영웅의 조건을 타고났지만 세속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토대로 세속적 삶을 혐오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세속적 삶을 통해 부귀와 공명을 최고도로 성취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비극이 되고 그의 갈등은 삶의 본질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위보형은 하루 빨리 세속을 떠나기 위해 운

30) 간옥지는 위보형이 순무사로 나가있는 틈을 이용해 설옥영을 납치할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설씨 일가가 머무는 집을 불태우고 설옥영을 납치하지만 이 때 설옥영이 피를 써서 대신 다른 여성을 납치해간다. 때마침 위보형은 설옥영이 화를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심복 장수들을 보내 간옥지 무리로부터 설씨 집안을 구하게 한다. 이를 통해 위보형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드러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위보형은 간옥지의 계획을 방어하는 선에서 그치고 그를 확실히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간옥지는 이초혜와 함께 서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명으로 주어진 세속의 삶을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아이러니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인식한 세속적 타락상에서 비롯된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의 인식이 맞았음을 재확인하면서 정신적·심리적으로 고뇌하는 면모가 부각된 인물형상이다. 운명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 인물은 무기력한 영웅의 형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니약한 영웅형 : 이사원

위보형이 세속적인 삶에 대한 염세적 인식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이사원은 위보형과 같은 현실인식을 보이지 않으며, 당면한 문제들을 당연히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이초혜와 간옥지를 처형하여 부모의 원수를 갚고 전란으로 인해 피난 중에 있던 곽숙비를 구하는 것은 물론, 위보형이 완전히 세속을 떠난 뒤에도 계속된 전란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군사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는 이사원을 위보형과 대조적인 형상으로 파악했다. 조동일은 『천수석』의 특징으로 인물의 성격적 대립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면서 위보형과 이사원을 대조적인 인간형으로 파악했다.³¹⁾ 위보형은 중세적 위기 앞에 무력한 면모로 일관하는 모습을 통해 봉건적인 이상에 투철한 인간의 패배와 좌절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이사원은 새 왕조의 왕위에 올라 천하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로서, 고난을 투쟁으로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영웅이 나와서 역사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당대의 소망이 투영된 인물이라고 해석했다.³²⁾ 박순임은 작품

31) 이극용은 버려진 이사원을 데려다 기른 養父, 즉 양육자이다. 논자는 이극용을 위보형의 무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결단력이 있는 행동하는 인간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위보형과 같은 군자의 이상과 명분이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이극용처럼 행동하는 인물이 나타나 역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질서가 재건되는 근대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나타냈다고 본 것에 대해서 본고는 견해를 달리한다.(조동일,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487~496면 참조)

전편을 통해 크게 대비되는 것이 위보형과 이사원이며, “위보형이 초세속 쪽에 가까운 인물이라면, 이사원은 세속 쪽의 인물”이라고 했다.³³⁾ 그리고 이사원이 위보형의 혈육이면서도 이극용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사원이 이 두 인물 사이에서 명분과 행동의 양극적 대립의 합일된 모습으로 설정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위보형의 삶의 방식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능력을 발현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반대로 이사원이란 새로운 능력을 가진 인물의 등장이 현실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온당한 해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사원은 표면적으로 세속적 삶을 대하는 태도가 위보형과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웅형 인물들이 보여주는 공명심이나 세계를 구하려는 뚜렷한 자각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보형과 상통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이사원의 특수성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심한 유아기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온통 부모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으로, 극단적인 예로 그는 나라의 패망을 결정짓는 전란의 한복판에서도 부모에게 자신을 데려가라고 애걸하는 나약한 인물이다. 정리하자면 이사원은 귀족적 영웅의 조건을 타고나 영웅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도 하지만, 세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부재한다. 실상 그는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목적의식이나 세계를 구하려는 영웅적 자각이나 부귀공명과 같은 세속적인 성취의지마저 보이지 않는다.³⁴⁾ 그리고는 부모와의 同住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둔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이것의 성취가 유예되므로 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는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태도를 빈번하게 보여준다. 그는 황제가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天命이 다하여 선계에 있는 부모와 재회하게 되기를 하늘에 대고 축원한다. 이처럼 뚜렷한 세계인식이 부재한 채, 삶의 목적과 의미를

32) 조동일, 앞의 책, 487~497면 참고.

33) 박순임, 앞의 논문, 124면

34) 이사원이 위보형의 적대자인 이초혜, 간옥지를 처벌하는 일이 우연히 하룻밤 목계 된 집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도적의 무리에 대한 보복 심리에서 발로된 것이라는 설정 또한 이런 의미에서 파악될 여지가 충분하다. 다시 말해 그는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에서 이를 수행한 것이 아닌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에 두면서 이 문제에 감정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형상이 두드러진 이런 인물을 본고는 나약한 영웅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사원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심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이사원은 위보형과 설옥영의 아들이지만 곽숙비에 의해 이들이 이혼하는 바람에 태어나자마자 義母인 동창공주의 손에서 자랐다. 그러다가 4살이 되었을 때 동창공주가 죽고, 처음으로 親母 설옥영을 만난다. 하지만 1년 만에 위보형이 귀양을 가는 바람에 친부모와도 헤어진다. 조부모에게 맡겨진 이사원은 곧바로 이초혜와 간옥지 무리에 의해 납치당하고, 우연히 구출자를 만나 2년을 떠돌다가 변방인 漠北 沙陀지역으로 흘러들어가 7세에 진왕 이극용을 만난다. 그리고 이극용으로부터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사원은 어쩔 수 없이 이극용의 양자가 되어 살아간다. 그리고 16세가 되었을 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이극용을 따라 장안으로 가는데, 부모의 소식을 듣기를 고대하여 出師를 서두른다. 이 때 나라의 위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선계로부터 위보형이 내려와 父子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보형은 황소의 난을 평정하자마자 곧장 선계로 돌아가고 이후로는 세속과 완전히 단절된다. 그러므로 이사원은 4살 때 1년간만 친부모와 함께 살았을 뿐이고 이후로 약 15년간 부모를 그리워하며 지냈던 것이다. 또 위보형과 재회한 뒤에도 위보형은 곧바로 세속을 떠나기 때문에 이사원은 이 시점으로부터 자신이 죽는 69세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의 시간동안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³⁵⁾

사실 위보형은 14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그가 아들임을 안후에는 이사원이 변방에서 자라 한눈에 봐도 청아한 태도가 없는 변방 장수의 형상임을 보고 탄식하며 이사원더러 종신토록 진왕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한다. 또 위보형은 이사원에게 그들 부자의 연분은 적고 진왕과 이사원의 연분은 중한 것이 天數라고 거듭 언급하면서, 세속적 삶에 대

35) 이사원의 서사는 아버지 위보형과 재회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서술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 부자가 만나는 시점에서부터 서사의 결말까지는 끊이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고 이사원은 여기에 모두 관여한다. 하지만 서술자는 이사원의 군담과 무용에는 관심이 없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미련 없이 도피해버리는 위보형의 선택과 이에 따른 이사원의 심리적 고통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 그러했듯 자식에 대해서도 욕심이나 집착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위보형은 세속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아들과의 짧은 인연마저 운명이라면서 그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보낸다.

아마도 이사원이 위보형과 대비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은 이 국면에서일 것이다. 이사원은 위보형과 달리 아버지 혹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강렬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사원은 위보형과 재회한 이후로 위보형을 졸졸 따라다니며 모든 행동을 함께 하는데 그는 혼례를 치른 날 밤에도 신방에 가는 대신 아버지의 처소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잔다. 그러자 위보형은 아들의 이런 태도를 보며 오히려 자신은 곧 세속을 떠날 것임을 알려 아들에게 현실과 운명을 직시하게끔 한다. 하지만 이사원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고 한다. 즉 자신도 세속의 삶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진왕의 양자를 포기하겠다고도 하고, 진왕에 대한 은혜를 빨리 갚고 아버지를 따르겠다고도 한다.³⁶⁾ 위보형은 세속을 떠나기 전 날 밤 이사원에게 여러 가지로 당부를 하며 날을 새운다. 하지만 자신과의 이별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이 안쓰러운 나머지,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떠난다. 이사원은 세속을 떠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恨을 침식을 폐하며 통곡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후 그는 만사에 즐거움이 사라져 妻子마저 찾지 않은 채 홀로 지낸다.³⁷⁾ 이러한 행동양상을 통해 이사원이 삶의 의미를 부모와의 同住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이 인물의 삶의 목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를 위해

36) 스원이 뉴테 왕, “대인이 성을 닦아 다시 상위에 거시니 쇼지 비록 진부의 가나 반환하여 피실가 허더니 이제 니별을 니르시니 이 엇단 뜻이니잇가?” (중략) 스원 왕, “야애 만일 피호로 도라가시면 쇼지 갈녁하여 진왕의 은혜를 감고 부친을 조차 피회 가 모친을 보옵고 한가한 뵙성이 되디 못허리잇가.” (중략) 승상이 웃고 굴오디, “오이 그릇 아는도다. 나는 세상 인연이 적고 복록이 임의 찾거니와 너는 단연이 길고 복록이 덧거오니 이씨의 비록 나를 조차도 모춤내 너의 단연은 쫓디 못홀 거시니 지양이 □□더을디라. 므슴 유익 흥미 이시며 네 원시 날노 더브러는 연분이 적고 왕으로 더브러는 연분이 똥흔니 이역시 텃쉬라. 인척의 도모홀 배 아니라.” (중략) 스원이 굴오디, “만일 이 ㄱ툼면 쇼지 다시 부모를 보디 못허리잇가?” 승상 왕, “네 근심 말나. 십년이 못허여셔 널노 더브러 다시 보리라. 네 만일 므움을 닦가 튥효를 지극히 하고 민심을 어엿비 너길디대 혼업이 진흔날은 부지 영: 히 모드리라.” 스원 왕, “비록 인연이 못는 날인들 야애 머뜨시는 짜홀 니르디 아니시니 엇디 능히 츠즈리오?” (『천생석』 권6, 72b-73b).

37) 『천생석』 권7, 8a.

세속적 삶을 버릴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위보형이 떠난 후 세속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 황제는 무능하고 조정이 간신들에 의해 장악되는 현실은 여전하며 전쟁 역시 계속된다. 이사원은 진왕과 함께 이런 국가적 위기에 대처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짊어지고 있으며 또 이를 수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래서 이사원은 전쟁이 좀 잠잠해진 어느 시점에 마침내 부모가 은거하고 있을 만한 곳을 찾아 8~9개월간 名山을 헤매고 다닌다. 그러다 마침내 한 노옹을 만나 꿈을 통해 선계에 깃든 부모를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이사원은 4세에 헤어진 후 30세가 되어서야 친어머니인 설옥영과 해후한다. 그리고 위보형, 동창 공주, 동생 계원과 함께 생애 처음으로 가족이 모여 수개월간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 이때에도 이사원은 부모와 함께 살려는 욕심에 세속의 혼란상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는다.

일 은 설부인과 공췌 위공으로 더브러 혼당의 안자 스원드려 니르디,

“네 완 디 오라니 도라가 공업을 다 일워 텃수의 덩허신 거슬 밧고 도라올 디어다. 진왕이 보야호로 너를 기드리미 오라니라.”

스원이 놀나 디왈,

“쇼지 겨유 부모를 만나 겨유 수월의 니르러 브어시 더디관디 야애 구투어 쇼즈로 허여곰 난세의 더디러 하시느니잇고?”

공이 탄왈,

“내 엇디 너를 찌나고져 허리오마는 네 불셔 진왕의 즈식이 되여 부즈의 은이 둥허고 잔당오디의 네 불셔 드러시니 텃명을 역디 못홀디라. 이제 수십 세 디나면 성췌 날 거시니 어린 님군의게 성민을 맞디고 네 진연이 진허는 날 은 영ᄃ히 내 압퓌 이실디라. 엇디 적은 니별을 설워허리오. 이후는 다시 보 디 못홀 거시니 우리로써 거리끼디 말나.” (『천생석』 권7, 38a-38b)

어느 날 부모가 이사원에게 이제 세속으로 돌아가 功業을 이루고 天數가 정한 것을 다하고 돌아오라고 하자, 이사원은 오히려 이제 겨유 부모를

만나 수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왜 구태여 나를 亂世에 던지려 하느냐고 반문한다. 이렇게 볼 때 이사원은 부모와의 관계에만 삶의 의미를 둘 뿐 국가의 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식이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위보형은 이사원이 세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역할과 운명에 대해 인지시키면서 그를 세속으로 내보내려 한다. 하지만 이사원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냇을 놓고 있다가 엉겁결에 떠밀려 다시 세속으로 보내진다.

이후 세속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朱溫과 싸우다가 진왕이 죽자, 주온은 황제 애종을 죽이고 스스로 後梁의 태조가 된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 처한 이사원은 이번에는 타의로 선계에 이르게 된다. 이유인즉슨, 남두선웅과 북두선웅이 당나라의 운수를 정하는 바둑을 두고, 그 결과로 이사원이 주온을 격파하여 당나라를 부흥시키게 하는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위공이 비로소 스원의 오술 잡고 2장 늦겨 탄하여 고평오디,

“턴수는 가히 인력으로 흘 배 아니어니와 당실을 도라 넘녀헌대 엇디 슬프디 아니헝리오. 진왕이 죽으매 니시 더욱 위급하고 주온이 녀쉬 쏘흔 진하여 가니 네 썰니 연업을 밋고 청정이 도의 나아올디니 턴하 심민으로 하여곰 진주를 맞디고 부귀 오는 때의 복성을 단양으로 도라보내라. 대동의 덜은 건당이 뉴락하여시니 이 정히 쇼민의 아들이라 가히 왕언장을 당헝리라.”

스원이 테루 왈,

“비록 언장을 이기나 당 괴쉬 불셔 진헝였고 부왕이 기세하니 쇼지 어저러 온 세상의 부귀흐른 본디 원티 아니 금일 대인과 조뷔 엇디 쇼즈를 거느려 가디 못헝시느니잇가.”

위공이 고평오디,

“이는 턴명이라. 엇디 내 므옴으로 헝리오 모들 날이 먼듯하나 디난 헝디 다만 갓잡고 네 모친이 각 평안이 이시니 엇디 가디 아니헝리오.”

위시듬이 고평오디,

“완 디 오라고 군둥일이 급하니 썰니 도라보내라.”

제공이 낙히 니러나 각 빅운과 청운을 타고 뫼흐로 올라가니 스원이

크게 울고 반항이나 부친의 가는 냇을 바라보다가 뒤편 아리로 느려와 대동의 나라니 (『천생석』 권7, 50a-51a)

남두선웅과 신선이 된 위보형 일가가 옥황상제에게 청한 결과, 이사윈에게 당나라의 운수를 책임지는 大業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사윈은 이것의 중대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사윈은 당나라의 운수가 이미 다하였고 진왕이 죽었으며, 자신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부귀해지는 삶을 본래 원하지 않으니 자신을 선계로 데려가라고 울부짖는다. 이 대목에 이르면 이사윈은 위보형과 마찬가지로 세속적 삶에 대한 욕망과 미련이 없는 모습을 분명히 드러낸다. 나라의 흥망이 걸린 전란의 한복판에서도 이미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부모를 따라가겠다고 울부짖는 이사윈의 모습은 위보형이 자신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보여준 체념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비록 위보형처럼 처음부터 세속적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여준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이사윈의 세속적 문제에 대한 대응태도는 위보형과 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이사윈의 운명은 위보형의 운명의 계승이다. 위보형이 그토록 원했던 세속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속으로 나와 황소의 난을 평정해야 했던 것처럼 이사윈 역시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자각이 결여된 채 운명에 의해 나라를 구해야 하고 황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두 주인공은 의식과 행동이 괴리된 영웅의 형상을 보여준다.

이후 이사윈은 천명이라는 이유로 떠밀리듯 다시 세속에 나와서, 구름을 타고 떠나는 아버지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울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업을 수행하러 떠난다. 이사윈은 滌王의 군대와 합심하여 주운을 죽여 전란을 끝내고 새로운 인물을 황제로 세우지만, 수차례 황제가 바뀌어도 황제는 주색에 荒淫하여 정사를 다스리지 않고 조정은 권신들이 장악하고 제후들이 이반하고 도적이 봉기하는 세속의 혼란은 지속된다. 그래서 또 다시 황제가 죽임을 당하자, 이사윈은 군대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어 어쩔 수 없이 즉위한다. 하지만 이사윈은 황제가 되어서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세속의 삶이 빨리 끝나기를 기

원한다. “도모의 부모의 음용을 두려워 진주를 어더 만민을 의탁하고 세상을 버릴 쓰디 잇는다라. 미석의 분향하여 하늘이 진인을 내물 특원³⁸⁾”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듯이, 세속을 버리고 부모와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이 그의 삶의 지향점이다.

명종 황제로 등극한 이사원은 養子들의 반란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병이 들어 결국 죽는다. 더불어 이사원이 죽은 이후에도 정국은 여전히 권력 다툼으로 인해 끊임없이 황제를 죽이고 새 황제가 등극하는 혼란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것은 이사원 역시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혼란한 세속의 상황은 이사원이 정사를 힘써 다스리는 시대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된다. 다시 말해 이사원 역시 위보형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영웅인 것이다.

계다가 진왕 이극용은 작중 인물들에 의해서도 평가되듯이, 술을 좋아하고 지략이 없는 탓에 여러 차례 주운의 계교에 빠져 자신의 심복 장수들을 잃는 과오를 범한다. 그는 전란이 잠시 주춤하면 어김없이 飲酒作樂으로 날을 보내며 국사나 軍務를 돌보지 않다가 養子들의 배신을 겪는 바람에 가장 총명한 장수마저 잃는다. 이것은 주운이 기병할 빌미를 제공했고 진왕은 이 때 주운과 맞서다가 죽음을 당한다. 간단히 말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자초한 셈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극용을 위보형과 대조적인 인물이고 “위보형 같은 군자는 이제 가망 없게 된 다른 한편에서, 이극용처럼 행동하는 인물이 나타나 역사의 위기를 극복³⁹⁾하기를 바라고, “질서 재건의 근대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이극용을 통해서 나타냈다⁴⁰⁾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 과연 이사원이 천하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로 볼 수 있을지, 고난을 투쟁으로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영웅이 나와서 역사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당대의 소망이 투영된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또한 위보형이 세속의 부정적인 상황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명분

38) 『천생석』 권7, 65a-b.

39) 조동일, 앞의 책, 496면.

40) 위의 책, 같은 곳.

을 중시하여 실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물인데 반해, 이극용은 부정적 상황을 보면 행동으로 맞섬으로써 그것을 개조할 수 있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물로 보는 대립적인 인물 분석 역시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⁴¹⁾ 또 위보형을 명분의 상징으로, 이극용을 행동의 상징으로 보고 이사원을 명분과 행동의 양극적 대립의 합일된 모습으로 보는 것은 일면적이고 단순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사원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모와의 관계에 두는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목적의식이나, 부귀공명을 성취하려는 자아실현의 의지, 혼란한 시대상황을 개조해보겠다는 역사의식 중 그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사원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결해야만 하고 황제가 되어 무너져가는 황실을 일으켜야 하는 일련의 삶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혹은 배치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위보형의 형상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사원은 위보형과 마찬가지로 의식과 행동의 괴리를 겪는 영웅이며, 세속적 삶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서도 세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세계에 남겨진 비극적인 영웅이며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 실패한 영웅인 것이다.

5. 『천수석』의 소설사적 의미

『천수석』에 등장하는 영웅형 인물들은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영웅형 인물 가운데 귀족적 영웅의 형상과 민중적 영웅의 형상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천수석』의 영웅들은 귀족적 영웅의 완벽한 조건을 타고났으면서도 세속적인 삶에 대한 욕망이 없고, 그러한 욕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 남겨져야 하므로 의식과 행동의 괴리를 겪는다. 이로부터 두 영웅 형상의 비극적 성격이 도출된다. 또한 이들은 고뇌하는 심리적 면모가 두드러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데에서도 발견되듯,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축소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위보형과 이사원의

41) 박순임, 앞의 논문, 118면.

인물형상은 관념적인 영웅의 형상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영웅의 형상화를 이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웅의 이야기가 신화에서 소설로 전승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변모로써 영웅의 성격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논의는 『천수석』에 이르러 일면 진전된다. 『천수석』의 위보형과 이사원은 영웅적 형상보다 개인적 형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영웅의 왜소화, 축소화,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작품의 진보적이고 문제적인 측면은 바로 이 국면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실 귀족적 영웅이든 민중적 영웅이든 영웅의 서사에서 욕망의 성취문제는 작품의 핵심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주인공이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념조차 오히려 욕망 성취를 위한 매개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그리고 이러한 욕망이란 세속적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천수석』은 주인공의 소망이 세속적 삶으로부터의 탈피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웅 서사의 전제를 뒤집는다. 『천수석』의 영웅형 인물들은 세속적 삶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역설의 논리가 성립되므로, 『천수석』에 구현된 영웅 서사는 일반적인 영웅 서사의 문법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천수석』의 시대적 배경과 비극적 결말 구조에 대한 해명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귀족적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는 행복-고난-행복의 순차적인 구조 내지 결핍과 충족의 구조⁴³⁾를 토대로 한다. 이러한 행복한 결말의 구도는 세계와의 갈등과 세속적인 혼란은 일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세계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컨대 귀족적 영웅의 삶에는 주인공의 상승적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향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수석』에서 이러한 논리는 부정된다. 『천수석』에서 위보형의 서사는 행복한 조건을 타고나 고난에 처한 이후, 고난의 상태에서 종결된다. 이것은 이사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는 위보형과 달리 처음에는 자신의 삶 자체를 고난으로 인식하지

42) 박일용, 앞의 책, 31면.

43) 안기수, 「지향가치의 실현방법」,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160면.

못하지만, 고난을 극복한 뒤에도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때에야 비로소 세속적 삶을 원하지 않는 문제로 괴로워한다는 점에서 이 영웅의 서사도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행복-고난의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 결말구조는 위보형의 비관적 세계인식과 순환적으로 맞물려있다. 위보형은 세계에 대한 강한 불신과 비관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이 영웅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천수석』에는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지향의식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이 작품이 당말 오대라는 역사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사실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영웅 형상의 축소화, 비관적인 세계인식과 비극적 결말구조 등으로 정리되는 『천수석』은 세대변화에 대한 통찰과 변화하는 세계상에 대한 냉철한 직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천수석』은 정말 대단한 문제작인가? 여기서 위보형과 이사원의 현실 도피적 태도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천수석』의 연구 업적들을 통해 볼 때 이 측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천수석』의 소설사적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양반소설과 서민소설의 중간소설, 신성소설, 서민소설이 그것이다. 먼저 신성소설로 이 작품을 보는 논자들은 위보형의 현실도피적 성향과 태도를 토대로 이 작품의 세계관을 도가적 초월주의로 보고 『천수석』을 신성계열의 소설로 귀속시키는데, 이것은 『천수석』의 긴 서사를 통해 도출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도외시하고 결과론적으로만 작품을 바라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생각할 때 위보형과 이사원에게서 드러나는 현실도피적 태도가 함의하는 바는 도가적 초월주의라기보다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극단적 반영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해석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릴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후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작품에 대한 좀 더 적절한 접근 방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초월주의적 성향은 위보형의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깊이를 가늠케 하는 表徵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특히, 위보형의 비관주의는 세계에 대한 냉철한 통찰의 결과일 수 있다. 위보형이 당시 과거제도의 폐해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대목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위보형의 무기력한 형상과 악인형 인물이나 보조적 인물들의 세속적이고 생기 있는 형상을 대비적으로 바라보고 후자에서 작품의 의미를 찾고 이로부터 이 작품을 서민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라거나 서민소설로 규정하는 입장⁴⁴⁾은 그 나름대로 『천수석』의 특수성을 포착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자의식이 투영되는 주인공 위보형의 형상을 지나치게 퇴색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적합한 해석이 될 수 없다. 또한 인물 논의에서 거론했듯이 이러한 견해를 지닌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이사와원 이극용에 대한 해석 역시 작품의 실상으로 판단해보건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천수석』을 양반계 소설과 서민계 소설의 중간소설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 이 관점은 앞의 두 입장과 달리, 견해를 처음 제기했던 정병욱의 논의 이후 뚜렷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정병욱은 『구운몽』이나 『사씨남정기』와 같은 양반소설과 『한중록』이나 『인현왕후전』과 같은 궁정문학 등을 상류계층의 작품으로, 『춘향전』, 『홍부전』, 『심청전』 등의 판소리계 소설과 巫歌, 탈춤대사와 같은 구비문학 등을 하류계층의 문학으로 보고, 이 두 소설유형을 대척적인 양극에 둘 때 『천수석』, 『화문록』, 『보은기우록』, 『청백운』, 『낙천등운』의 낙선재본 소설은 그 중간위치에 정립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귀족양반계 소설과 서민계 소설의 중간노선을 걷는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 것이다.⁴⁵⁾

44) 조동일은 『천수석』을 봉건적인 양반의 이상과 명분이 이미 관철될 수 없는, 시민의 의식으로 인해 형성된 작품이라고 했다(『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30~33면). 박순임은 조동일의 관점을 발전시켜 『천수석』을 서민의식의 일단을 시사하며 서민소설과 나란한 위치를 가진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펼쳤다(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157면).

45) 「조선조 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낙선재(樂善齋)본 소설의 몇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의 재인식』, 기린원, 1988, 163~202면.

물론 고전소설을 신성소설과 세속소설로 양분하고 그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계열의 작품을 설정한 이상택의 견해가 있지만, 논자는 『천수석』을 신성소설의 작품으로 보고, 중간계열의 작품으로는 『낙천등운』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이상택은 『낙천등운』은 기존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반명제를 제기함으로써 상층소설과 평민소설의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상택, 「고전소설의 세속화 과정」(『한국고전소설의 이론 I』, 2003, 새문사, 67~70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본고에서 『천수석』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판단할 때, 『천수석』은 세 가지 입장 가운데 중간소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때 본고에서 『천수석』을 중간소설로 보는 이유는 시대적 의미를 따져볼 때 그 과도기적 성격 때문이다. 위보형과 이사원의 현실도피적 태도는 세속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니지 못했던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⁴⁶⁾ 이 작품은 세속의 타락상과 변모하는 세계상을 적나라하게 제시하는 것은 물론, 시종일관 이런 현실을 집요하게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직시이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주인공들의 절망적인 태도는 냉정한 현실인식의 결과로 보이는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을 서민소설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 작품이 지배계층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인물인 위보형의 고민과 고뇌를 핵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위보형의 형상을 통해 세계의 변모를 감당할 수 없는 지배계층의 무능을 그대로 폭로했다는 점에서 귀족적 세계관을 이상화하는 양반소설의 범주에서도 이탈했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천수석』의 비극적 결말구조는 작품에서 제시한 문제적 국면을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봉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작품의 작자가 지닌 세계에 대한 통찰은 비판적이고 꽤 심각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보형과 이사원의 현실도피적 태도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면서도 작품의 문제제기적 속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한계와 의의가 시대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바로 『천수석』의 소설사적 의미라고 생각한다.

46) 이에 대해 진경환의 논의가 참고할 만하다. 진경환은 「천수석」의 세계설정과 그 관계양상의 문제를 근대소설과 19세기 장편영웅소설과 비교하면서 논의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의 글에서 “『천수석』의 구조는 현실과 이념이 괴리되는 것을 심각하게 문제 삼으면서 잘못된 현실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힘을 갖지도 못한 계층의 세계관과 닮아있는 것 같다. 즉, 정치권력이 바로잡힐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열려 있지만 강력한 현실움직임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으며 단지 쓰러져 가거나 허약한 관념에만 기댈 뿐인 세계관적 기초로 인해 세속계와 비세속계가, 공존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 벽찰 정도로 상호 대립적이 되고 결국 그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주인공을 몰고 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논자는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도출해내기보다는 도식적인 가설의 수준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본다. (『천수석 소고』, 『어문논집』29, 안암어문학회, 1990, 112면)

6. 결론

이 논문은 『천수석』의 주인공 위보형과 이사원의 인물형상을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관점과 달리, 본고는 두 인물을 영웅의 형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의식이 투영된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새롭게 발견된 이본인 『천생석』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논의과정에 충실히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천수석』의 작자의식 및 소설사적 위상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위보형은 귀족적 영웅의 조건을 타고났지만 세속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세속적 삶을 혐오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세속적 삶을 통해 부귀와 공명을 최고도로 성취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비극이 되고 그의 갈등은 삶의 본질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그는 세속적 타락상에서 비롯된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의 인식이 맞았음을 재확인하면서 정신적·심리적으로 고뇌하는 면모가 부각된 인물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이 인물은 무기력한 영웅의 형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사원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모와의 관계에 두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同住를 위해서 세속적 삶을 미련 없이 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이것의 성취가 유예되므로 자신의 소망이 좌절될 때마다 침식을 폐할 정도로 슬퍼하는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목적의식이나, 부귀공명을 성취하려는 자아실현의 의지, 혼란한 시대상황을 개조해보겠다는 역사의식 중 그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뚜렷한 세계인식이 부재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모와의 관계에 두면서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이런 인물을 본고에서는 나약한 영웅형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원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혹은 배치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위보형의 인물형상과 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이사원은 위보형과 마찬가지로 의식과 행동의 괴리를 겪는 영웅이며, 세속적 삶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서도 세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세계에 남겨지고만 비극적 영웅이며 이 문제들

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 실패한 영웅인 것이다.

영웅 형상의 축소화, 비판적인 세계인식과 비극적 결말구조로 정리되는 『천수석』의 작품성격은 세태변화에 대한 통찰과 변화하는 세계상에 대한 냉철한 직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위보형과 이사원의 현실 도피적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천수석』의 소설사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본고는 『천수석』을 양반계 소설과 서민계 소설의 중간소설로 보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위보형과 이사원의 현실도피적 태도는 세속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니지 못했던 현실 그대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작품을 서민소설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 작품이 지배계층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인물인 위보형의 고민과 고뇌를 핵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위보형의 형상을 통해 세계의 변모를 감당할 수 없는 지배계층의 무능을 그대로 폭로했다는 점에서 귀족적 세계관을 이상화하는 양반소설의 범주에서도 이탈했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여느 작품들과 달리, 작품이 제기한 문제적 국면을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봉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작자가 지닌 세계에 대한 통찰은 비판적이고 심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보형과 이사원의 현실도피적 태도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면서도 이 작품의 문제제기적 속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의의가 시대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천수석』의 소설사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泉水石』,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9권 9책(梨花女子大學校 韓國語文學研究會 編,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2).
- 『천수석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책.
- 『턴슈석』, 임치균, 임정지 옮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 『턴싱석』, 선문대학교 한중번역문헌연구소 소장본 7권 7책.

2. 단행본

- 정병욱, 『한국고전의 재인식』, 기린원, 1988, 163~202면.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적 성격』,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14~39면.
- 조동일,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학』, 지식산업사, 1999, 399~504면.
- 조희웅, 『古典小說異本目錄』, 집문당, 1999, 726~727면.
- 조희웅, 『고전소설연구보정』, 박이정, 2006, 1005~1006면.

3. 논문

- 강은혜, 「<泉水石>의 敘述構造와 描寫談論 연구」, 『국어국문학』113, 국어국문학회, 1995, 55~83면.
- 강은혜, 「<천수석>과 연작 <화산선계록> 연구」, 『어문학』71, 한국어문학회, 2000, 121~160면.
- 김재웅, 「천수석연구」, 『한국학논집』2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153~174면.
- 김재웅, 「가문소설에 나타난 도가사상 - 천수석을 중심으로」, 『국문학과 도교』, 한국고전문학회, 1998, 259~283면.
- 박순임, 泉水石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1~161면.
- 박일용, 영웅소설의 하위유형의 이념지향과 미학적 특징」,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15~47면.
- 변우복, 「천수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135면.
- 서정민,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의 대응적 성격과 연작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1~95면.

- 송성옥, 「<泉水石>의 텍스트 결합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5~26면.
- 장시광, 「<천수석>의 여성반동인물」,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사, 2005, 277~307면.
- 진경환, 「천수석(泉水石)소고」, 『어문논집』29, 안암어문학회, 1990, 105~118면.
- 이상택, 「<泉水石> 解題」, 『泉水石』, 梨花女子大學校 韓國語文學硏究會 編,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2, 7~11면.
- 이상택, 「고전소설의 사회와 인간」, 『한국고전소설의 이해』I, 새문사, 2003, 77~109면.
- 이상택, 「낙선재본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고전소설의 이해』II, 새문사, 2003, 6~25면.
-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557~573면.
- 차충환, 「고전 국문장편소설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2008, 473~501면.

The Problematic Image of ‘Hero’ in *Chunsoosuk*

Chae, Yunmi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s Wi Bo-Hyung and Li Sa-Won as represented in the novel, *Chunsoosuk*. First defining the two characters as hero figures, this paper takes the perspective that the two characters are figures whom the novel’s main theme have been projected unto. Based upon this ide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riter consciousness of *Chunsoosuk*, as well as its status within the history of literature.

Wi Bo-Hyung, born with the requirements of an aristocratic hero figure, is actually a figure who is critical about the ways of the mundane world. However, the fact that he is fated to pursue wealth and honor in the mundane world by the virtue of his status makes his life a tragic one. Therefore, whenever he encounters problems due to the corruptions of the mundane world, he agonizes over them mentally and psychologically, rather than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The image of this character’s inability to make a choice, falling into distress, etc. can be described as the image of a troubled hero figure.

Li Sa-Won is a character whose life’s meanings lie in his goal to live together with his parents. However, destiny keeps deterring the achievement of such a goal on his part, and whenever his hope is crushed he becomes sad and emotional. This reveals that he lacks a more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is character can be defined as a weak hero figure. Li Sa-Won’s life is similar to that of Wi Bo-Hyung in that they each live a life that cannot be controlled by their own will.

Chunsoosuk, which ends with the reductive images of the hero figure, the negative view of the world and its tragic resolutions, is the product of the writer’s observations on the changing ways of life and the world that were taking place at the time the writer was writing the novel. Here, both Wi Bo-Hyung’s and Li Sa-Won’s attitude of refusing to confront reality, seems to be a reflection of the

reality of the times in which the problems of the mundane ways world were seriously ill yet without remedy. In other words, the novel is limited in that it cannot suggest any solution, but is meaningful in that it brings the problems to the forefront. In this sense, *Chunsoosuk* can be thought of as a novel that stands on the borderline between literati novels and peasant novels.

Keywords : *Chunsoosuk*, hero figure, a troubled hero figure, a weak hero figure, the reductive images of the hero figure, the negative view of the world, tragic resolutions, a novel that stands on the borderline between literati novels and peasant novels

접수일자: 2013. 3. 31 심사기간: 2013. 3. 31~2013. 5. 20 게재결정: 2013. 5. 20
